



[낙농경영] 프랑스-필리핀, 낙농 협력 강화 추진

- 식량안보는 물론 생산성 향상, 낙농정책 개발 등 협력 확대



프랑스와 필리핀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필리핀 낙농당국(NDA)은 프랑스 정부와 식량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필리핀의 원유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요 대비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는 물론 선진 낙농국인 프랑스의 우수낙농산업 사례를 벤치마킹해 생산성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낙농부문의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통한 낙농산업 발전으로 지역 낙농가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panaynews.net, 1월 21일 >

[시장동향] 英, 어린이 질식사고 유발 치즈 광고 금지 조치

- 업체 반박에도 심의 규정 미준수로 철회 요구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가 거꾸로 매달려 치즈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TV 광고가 어린이들의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광고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대형제과업체인 몬델리즈는 VOD 서비스를 통해 축구 골대에 매달려 있는 소녀들이 거꾸로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치즈를 먹는 광고를 송출해왔다.

실제로 해당 광고를 접한 후 이를 모방한 사례가 나오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됨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어린이들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업체 측은 해당 광고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로 어린이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촬영 당시 연기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고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제작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1월 19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